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1장43절은 이러한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이끌어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세월 동안 보호하시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는데 마침내 이 땅에 살던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며 오랜 시간 광야에서 살아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곳에 정착해서 살며 여러 이웃 나라들과 연합하며 자신들을 방어하는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한다는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하며 많은 무기와 말과 병거가 있는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분의 말씀에 따라 이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연이어서 4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며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방에 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맞서는 자가 없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장2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

여리고를 정탐한 사람들도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이었으므로 아무 성과가 없을 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통해 이 정탐꾼들에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모든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8절은 오늘 본문 가운데 언급된 이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얻게 된 안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아니었으며 또 다른 안식이 남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의 처음부터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처음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들은 그 분께서 주시는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고 뱀의 꾀임을 받은 이 후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아닌 내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안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하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생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애를 쓰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사람들이 그러한 착각 속에 살도록 미혹하고 있는데 바로 사람의 이러한 욕심과 사탄 마귀의 유혹이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그 탐욕의 늪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세상의 안식을 구하게 하고 부질없는 것에 열광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자식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 우리가 소망하

며 기다려야 하는 안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11절 말씀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을쓸지니"

성경은 우리의 관점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목이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가야 할 육신의 죽음 이 후의 삶을 바라보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누릴 안식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지도록 이 땅을 살아 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식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음과 육신의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분과 함께 있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 도다(시23:2)."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11:28-29)."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감당 한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계 7:17)."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평안하다 싶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또 찾아 오고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 하여도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안식을 쫓다가 허

무하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소망하며 이 땅을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